

뒷문지기 유동훈 億... 億... 2억1천만원

데뷔 11년만에... 연봉 133% 인상, KIA와 재계약

‘철벽 마무리’ 유동훈이 11년만에 2억 고지에 입성했다. KIA 타이거즈 투수 유동훈이 7일 9천만원에서 133.3% 인상된 2억1천만원에 연봉계약을 마무리했다. 인상액만해서 1억2천만원으로 2006년 장성호가 기록한 팀내 최다인상액(1억원)을 경신했다. 1999년 입단 이후 11년 만에 역대 연봉자대열에 합류하게 된 유동훈은 9천만원에서 단숨에 2억 고지를 밟으며 특급 대우를 받았다. 유동훈은 지난 시즌 마무리 자리를 지키며 ‘0점대’ 방어율(0.53)로 6승2패, 22세이브10홀드를 기록했다.

든든한 선발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볼펜진 중심에 선 유동훈은 KIA의 뒷문을 완벽하게 수호하며 12년만의 우승에 큰 공을 세웠다. 유동훈은 우승팀의 마무리로 정상에 우뚝섰지만 프로에서의 11년 동안 영광의 순간보다 좌절의 순간이 더 많았다. 데뷔 첫 해 4.75의 방어율로 7승9패2세이브를 장식하며 성공적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하는 것 같았지만 ‘자만’이 유동훈을 가로막았다. 내리막길을 걸던 유동훈은 2004년 2.98의 방어율로 7승2패 5세이브7홀드를 기록하며 제 2의 야구인생을 시작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선택’이 유동훈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재기에 성공한 것 같은 2004년 가을, 병역비리혐의로 불명예스럽게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서른 돌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마운드로 돌아온 프로 10년차 유동훈의 연봉은 6천만원에 불과했다. 복귀 첫해인 2008년 의욕이 앞서면서 하반기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3.43의 방어율로 6승3패2세이브9홀드를 기록했다. 역대 연봉 진입에 실패했던 유동훈은 2009년 다시 운동화끈을 보여줬다. 웨이트와 기본에 충실하면서 싱커의 위력이 배가 됐다. ‘볼펜 만형’으로서의 책임감도 유동훈의 발길을 재촉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 늘 볼펜에 대기해야하는 ‘볼펜 에이스’ 유동훈은 묵묵히 2009년을 보낸 끝에 팀 우승과 역대 연봉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품에 안았다.

유동훈은 계약을 마치고 “계약조건에 만족한다. 올해 어떤 보직을 맡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밑거름이 되겠다. 무엇보다 V11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누릴 수 있도록 마운드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전 유격수로 내야를 지킨 ‘새신랑’ 이현곤도 1억원에서 30% 인상된 1억3천만원에 계약을 마무리 했다. KIA는 2010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6명중에 51명과 재계약(재계약율 91.1%)을 끝냈다. 미계약 선수로는 이대진(투수), 최희섭, 김상현(이상 내야수), 이종범, 김원섭(이상 외야수) 등 5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1년 앞둔 올해를 도약의 해로 선언한 한국육상국가대표팀이 지난 5일부터 목포축구센터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유달경기장과 전남체고 등에서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팀 트랙선수들이 7일 유달경기장에서 가볍게 달리며 몸을 풀고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한국 서틀룩 간판 화순출신 이용대 코리아오픈 혼복 3연패 도전

한국 서틀룩의 간판 화순출신 이용대(22·삼성전기)가 1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제2체육관에서 시작하는 2010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슈퍼시리즈에서 혼합복식 대회 3연패와 남자복식 국제대회 5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용대는 지난 8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복식 준우승, 혼합복식 3위를 차지하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이후 대회에서는 승승장구했다. 정재성(28·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세계랭킹 2위)에서 홍콩슈퍼시리즈, 중국슈퍼시리즈, 화순코리아오픈, BWF 슈퍼시리즈 등 최근 4개 국제대회의 우승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카이운-후하이핑(중국·세계랭킹 7위)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이용대-정재성이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간다면 이들과 결승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이용대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파트너인

이효정(29·삼성전기)과 함께 나선 혼합복식(세계랭킹 1위)에서도 최근 출전한 2개 대회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특히 혼합복식에서는 대회 3연패를 노린다. 지난해 대회에서 준우승해 설욕을 노리는 아누그리타야인 송폰-보라비치트차이를 쿤찰라(태국·세계랭킹 8위), 덴마크의 요아킴 펠센-크리스티나 페데르센(세계랭킹 4위) 등 강적을 넘어셔야 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코리아오픈은 세계 배드민턴연맹(BWF)이 지정한 국제대회 중에서 랭킹 포인트가 가장 높다. 또 총상금도 30만달러(3억3천900만원)로 국제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배드민턴대회다. 김중수 대표팀 감독은 “이용대는 팔꿈치 부상에서 아직 완쾌되지 않아 조금 우려된다”면서도 “박성환은 상대적으로 대진이 유리한 편이며, 최호진은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다면 계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KIA 팬 곁으로

선수단 지원·팬 서비스 강화
구단사무실 무등경기장으로

KIA타이거즈가 선수단 지원과 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등경기장으로 구단 사무실을 이전했다. KIA는 7일 무등경기장 내 다목적 체육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KIA는 2001년 8월 창단때부터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연수원 2층 건물을 사용해왔다. 구단 사무실이 무등경기장 내에 자리하게 되면서 그동안 사무실과 야구장이 떨어져 있어 발생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무실 대표전화 : 062-525-1950 / 070-7686-8000 (팩스 : 062-525-5350) ▲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10번지 무등경기장 다목적체육관 2층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육상국가대표 목포서 힘찬 질주

내년 대구세계선수권 앞두고 정신 무장·몸만들기 돌입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정신력을 새로 무장한 한국 육상국가대표팀(총감독 문봉기)이 목포에서 한단계 도약을 위한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 대표팀은 지난 5일부터 목포축구센터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유달경기장과 전남체고 등에서 트랙·필드 등 세부종목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총 92명(선수 68명, 코칭스태프·연맹관계자 24명)이 참가한 이번 전훈련팀은 9일까지 전일 합동훈련을 하고 10일부터는 트랙팀은 태릉선수촌, 필드팀은 목포로 각각 훈련장소를 달리하게 된다. 특히 필드 선수들은 2월말까지 목포에 체류할 계획이다. 마라톤과 경보 선수들은 환영조 마라톤 기술위원장과 외국인 코치와 함께 내달 28일까지 제주도에서 훈련한다. 대표팀이 목포에 훈련캠프를 차린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

신 시설의 경기장,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708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개장한 축구센터는 안락한 숙소 뿐만 아니라 겨울철 육상 선수들이 부상 위험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6개나 갖춰져 있는 최적의 훈련장이다. 대표팀은 이번 목포훈련에서 정신력과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문봉기 총감독은 “대표팀이 침체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재무장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제까지 현실에 안주해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뛰는 자만이 남는다’는 적극적인 도전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감독의 대표팀 개혁 의지는 전지훈련 장소 선택에서도 나타났다. 이제까지 대표

팀은 매년 해외로 전지훈련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해외훈련이 거액의 훈련비를 투자한 것에 비해 성과는 너무 미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훈련으로 바꿨다. ‘훈련 환경’보다는 ‘훈련 자세’가 중요하다는 문 감독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단거리 선수 세대교체 등 체질변화를 시도한 대표팀은 훈련 기간 중 오전 6시에 기상해 하루 8시간씩, 6일 훈련 1일 휴식으로 고강도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대표팀에는 김덕현(광주시청·세단뛰기), 정순욱(안동시청), 김성호(한체대·이상 멀리뛰기), 이현복(400m·전남체고), 박철성(경보·삼성전자), 김민(건국대), 박경민(서울시청), 박주영(한전·이상 마라톤) 등 광주·전남 출신 선수 10여명도 포함됐다. 내달 말까지 동계 훈련을 갖는 대표팀은 오는 5월 열리는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첫 훈련 성적표를 받게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기아차 후원 호주오픈 테니스

한국대표 ‘볼키즈’ 호주로

기아자동차는 자사가 후원하고 있는 ‘2010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볼키즈로 참가한 한국 대표팀이 발대식을 가진 뒤 호주로 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볼키즈(Ball Kids)란 테니스 경기에서 테니스 공 공급, 처리를 비롯해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유소년들을 일컫는다.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볼키즈 선발대회를 열어 영어능력 평가와 실기 평가 등을 통해 한국 대표 볼키즈 20명을 뽑았다. 이들은 무려 1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이들은 전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300명이 넘는 볼키즈와 함께 오는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되는 2010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장에 투입돼 경기 운영을 돕게 된다.



20명의 호주오픈 볼키즈 한국 대표팀들이 기아차가 후원하는 세계 4대 그랜드슬램대회 중 하나인 ‘2010 호주오픈’ 참가를 위해 호주 현지로 출발했다. 6일 오후, 출발에 앞서 인천공항에 모여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2009 호주오픈 볼키즈 한국대표들. /연합뉴스

볼키즈 한국 대표팀은 먼저 시드니에서 현지 문화 체험 시간을 가진 뒤 멜버른으로 이동해 집중 훈련을 받는다. 한편 기아차는 테니스 분야에서 세계 4대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의 후원을 2013년까지 연장했으며, 매년 20명의 유소년을 선발해 볼키즈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진 2009.12.20~2010.02.28
100% 환급혜택
(주)우동관광여행사
전화 : 062-383-9042

제주여행 이지 할인 받고 가자!!

1.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	2. 제주여행 상품	3. 제주여행 상품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	제주여행 상품	제주여행 상품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	제주여행 상품	제주여행 상품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	제주여행 상품	제주여행 상품